경북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이 광 하

*이광하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경북대학생으로, 석방된 후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 현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하고 있다.

1973년 11월 경북대학교 반독재구국선언 학생운동이 있었다. 이때는 교내의 수많은 학생이 호응하여 도청앞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화영,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 이한용, 강기룡, 최문수 등이 주동하였고, 그외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였다. 이때 체포된 사람은 최문수와 이한용이며, 그외 다른 동지들은 모두 피신하였다. 약 한달 뒤인 12월 7일 공소취하되어 모두 도피생활을 청산하였으며, 수감 중인 동지들도 석방되었다. 그러던 중 1974일 1월 8일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었다.

이에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한국풍토연구회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유신헌법 폐기와 1·8긴급조치 철회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974년 4월로 예정된 전국적인 학생운동, 즉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봉기에 앞서 대구·경북에서 점화를 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먼저 경북대학교에서 이를 결행하기로 하였다.

경북대학교에서 먼저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화영, 이강철,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 강기룡, 김진규, 윤규한, 유진숙 등은 함께 논의하여 1974년 3월 21일 10시 경북대학교 교정에서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신헌법반대 학생운동을 일으켰다.

반독재구국선언의 전개과정

1974년 2월 10일 20시 경 경북 달성군 하빈면 강창나루터 소재 주점 '두영이집'에서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황철식은 민청학련 조직을 위하여 내려온 서울대학교 유인태, 전홍표, 김재근 등과 회합하고,

1974년 신학기 학생운동은 전국 각 대학이 상호 연결을 갖고 연맹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고 해결, 학원자유 보장, 유신헌법 철폐 등을 내걸고 3, 4월에 일제히 봉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이광하, 장성백, 강기룡, 윤규한, 김진규 등과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다.

1974년 2월 25일 20시 대구시 남구 대봉동 141-3번지 소재 이강철의 집에서 이강철, 임규영, 이광하, 황철식, 강기룡, 장성백 등과 유신헌법과 1.8긴급조치를 반대하고, 앞으로 있을 전국 각 대학교의 조직적인 반정부데모에 대비하여 해체된 한국풍토연구회(약칭 한풍회)의 조직을 다시 정비, 조직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국적인 데모의 선봉 역할을 한풍회가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974년 3월 6일 16시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주점에서 정화영,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이 같이 만나 "학원자유 확보,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 등의 투쟁을 학생이 하여야 한다.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정책으로 근로대중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학원자유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풍회가 크게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의를 하였다.

1974년 3월 10일 19시 경 임규영은 윤규한을 대명동 소재 빵집 '풍국당'에서 만나 경북대학교 학생 데모에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1974년 3월 15일 13시 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초원다방에서 김진규를 만나 참가를 권유하였다. 또한, 김진규는 1974년 3월 17일 11시 경 남구 봉덕동 자기 집에서 임규영을 만나 대통령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의 철폐를 위한 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의하였다.

1974년 3월 19일 13시 경 황철식과 임규영은 경북대 시청각실 옆에서 21일 데모를 결행하기로 하고, 한풍회 회원인 법정대학 조태수와

김시형에게 "3월 21일 교내에서 데모를 결행한다. 우리 한풍회가 주동하는 일이며, 또한 정치외교학과 선배인 정화영이 앞장서고 있으므로 후배인 우리가 도와야 한다. 특히 정치외교학과 후배인 조태수, 김시형 동지는 적극 참여하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1974년 3월 20일 18시 경 황철식, 장성백, 강기룡, 정화영, 조태수, 김시형 등은 대구 성당동 소재 '대구식당'에서 함께 만나 내일(3. 21) 제1교시가 끝나는 종소리를 신호로 하여 데모를 감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사용할 선언문은 '경북대학교반독재구국투쟁위원회' 명의로 정화영이 준비하기로 하고, 강기룡은 법정대학과 도서관, 황철식은 사범대학, 장성백과 조태수는 교양과정부 동편, 김시형은 교양과정부 서편 교정에 뿌리고, 학생들을 교내 로터리에 집결시키도록 하였다.

교내 로터리에 집결한 뒤, 후문을 통하여 시내로 진출하며, 만약 경찰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서 투석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데모를 위한 다른 준비물은 정화영과 강기룡이 함께 하기로 하고, 경북대에서 선봉을 감행하면 그 뒤를 이어 전국 각 대학이 다 궐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이미 이강철과 정화영이 서울과의 모든 연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봉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자고 결의하였다.

한편, 윤규한은 데모 당일 3월 21일 8시 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 소재 오스카 극장 앞에서 임규영을 만나 공과대학 2학년인 이승룡과 오늘 9시 50분에 데모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인문관에 선언문을 살포하기로 하고 선언문 200매를 받아 살포하였다.

1974년 3월 21일 8시 30분 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 왕거리빵집에서 정화영으로부터 황철식은 선언문 200매, 현수막 3매를, 장성백은 선언문 200매, 구호문 5매, 현수막 4매를, 강기룡은 선언문 200매, 구호문 20매, 현수막 3매를 각각 전달받았으며, 황철식은 사범대학 가정학과 4

년 유진숙과 함께 사범대학에서 이를 배포하였으며, 장성백은 조태수와 함께 교양과정부에서 배포하고, 강기룡은 법정대학과 도서관에서 배포하였다.

이광하는 3월 19일 임규영과 만나 3월 21일 09시 50분에 데모가 결행될 때 학교 당국이나 수사정보기관에서 데모가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도록 위장하기 위하여 평상시와 같이 교양과정부 동편 현관에서 한풍회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고, 당일 3월 21일 9시부터 교양과정부 동편에 책상을 가져다 놓고 〈한국풍토연구회 신입회원 모집〉이라는 현판을 써 놓고 데모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승룡으로부터 선언문 수십매를 전달받아 이를 배포하였다.

또한, 윤규한과 김진규는 3월 24일 20시 경 임규영과 만나 "3. 21 데모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서울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우리 경북대에서도 다시 불을 일으켜야 한다. 대구 시내의 유신반대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도 선언문을 뿌리자"고 의논하고, 윤규한은 대구상업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김진규는 대구고등학교와 대륜고등학교 및 효성여자대학교에 살포하기로 하고, 윤규한과 김진규는 선언문 수매를 돌멩이에 싸서 각 학교의 교내로 던지기도 하였다.

경북대학의 반유신학생운동 관련자

이광하는 경북 청도군 각남면 녹명2리 760번지에서 태어나, 각남초등학교 및 풍각중학교, 1971년 1월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월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에 입학,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전국불교학생회 경북지부 사무장을 역임하였다. 1972년 한국풍토연구회에 가입하여 1973년 4월부터는 한풍회

의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였으며, 1973년 11월 경북대학교 유신반대 데모를 황철식, 임규영, 이한용, 강기룡, 최문수 등과 주동하였다.

11월 데모 당일에는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학과 친구인 정원식의 도움으로 원예학과 연구실에서 친구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신할 수 있었다. 그 뒤 부산의 친척집 등에서 1개월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7일 공소가 취하되었다.

1974년 3월 21일 경북대학교 반독재구국선언 학생운동 때에는 당일 19시 경 자택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되어 중정 대구분실로 끌려가 심문받았으며, 대구북부경찰서에서도 심문과 조사를 받았다. 그 뒤 서울로 압송되어 1974년 8월 14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1974년 9월 25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치소, 안양교도소, 대구교도소를 거쳐 1975년 2월 16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황철식은 경북 달성군 하빈면 봉촌동 156번지에서 태어나, 1971년 1월 대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3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였으며, 1971년 11월 20일 임규영, 이한용, 강기룡 등과 한풍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총학생회 학예부장을 역임하면서 1973년 11월 5일 경북대학교의 유신체제반대 데모를 주동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7일 공소 취하되었다. 1974년 3월 21일 경북대 데모와 관련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치소, 안양교도소, 대구교도소를 거쳐 1975년 2월 16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장성백은 경북 문경군 영순면 미음동 526번지에서 태어나 1971년 1월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에 입학하여, 1971년 11월 한풍회에 가입하여 동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1973년 11월 5일 경북대학교 유신반대 데모를 주동하였으며, 같은 해 12년 7일

공소 취하되었다. 1974년 3월 21일 경북대 데모와 관련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치소, 안양교도소, 대구교도소를 거쳐 1975년 2월 16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강기룡은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교대동 154번지에서 태어나, 1972년 1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3월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1973년 3월 한풍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73년 10월 31일 단독으로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하다가 체포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1973년 12월 7일 공소 취하되어 석방되었다. 1974년 3월 21일 경북대 데모와 관련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치소, 안양교도소, 대구교도소를 거쳐 1975년 2월 16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윤규한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1가 935-4번지에서 태어나 1972년 1월 대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3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72년 4월 한풍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73년 11월 5일 경북대학교 유신반대 데모를 주동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7일 공소 취하되었다. 1974년 3월 21일 경북대 데모와 관련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치소, 안양교도소, 대구교도소를 거쳐 1975년 2월 16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김진규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 1106번지에서 태어나 1971년 1월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농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1973년 11월 5일 경북대학교 유신반대 데모를 주동하였으며, 12월 7일 공소 취하되었다. 1974년 3월 21일 경북대 데모와 관련하여 비상보통군법회

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치소, 안양교도소, 대구교도소를 거쳐 1975년 2월 16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유진숙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에 재학중이었으며, 1974년 3월 21일 경북대학교 반독재구국선언 학생운동 때에는 황철식과 함께 사범대학 구내에 선언문을 배포하였다. 구속되어 서울 서대문구치소에 3개월 여 투옥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출감하였다.

강동균은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에 재학하였으며 한풍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1974년 3월 21일 반독재구국선언 학생운동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후일을 기약하기 위하여 운동력을 다소 남겨두자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조태수, 김시형 및 이승룡 등도 반유신 운동과 관련하여 조사와 심문을 받았으나, 공소되지 않았다.